


**오늘의  
게시판**
**2006 광주비엔날레 사전 설명회** 오후 6시 프라도호텔


&lt;22일&gt;

▲2006 광주비엔날레 사전 설명회=오후 6시 프라도호텔.

▲제 23회 서남권 아카데미 강좌=오후 3시30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. 전남대 의대 이무석(정신과 전문의) 교수가 강사로 나서 '청소년 시기의 심리 특성과 마음을 여는 대화의 기법'에 대해 강연.

▲제70회 순천사랑아아카데미 강좌=오후 2시 순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. 윤봉부 연세대의대 교수 가 '현대인의 건강관리'에 대해 강연.

▲보훈가족 및 소외노인 안경 기증 및 경로행사=오전 10시 광주공원 시민회관 앞.

&lt;23일&gt;

▲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=오전 7시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. 이정재(광주교육대 교

수)씨가 '지도자의 사명과 역할'에 대해 강연. ▲제 49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=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. 이병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'참여정부의 리더십'이라는 주제로 강연.

▲21세기 담양포럼=오후 4시30분 담양 문화회관 대공연장. 최윤희(카페리아티)씨가 '마음만 바꾸면 나도 백만장자'라는 주제로 강연.

▲제 7회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=오전 11시 목포 호성웨딩문화원.

▲전트리오와 함께 하는 '5시 콘서트'=22일(목) 오후 5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3층 공연장.

▲뮤지컬 '마리아 마리아'=22일(목) 오후 7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. 일반 1만원·학생 5천원.

▲뮤지컬 '콩쥐야! 팔쥐야!'=22일(목) 오전 10

시10분, 11시 20분 광산문화예술회관.

▲광주 시립합창단 제 119회 정기연주회 '아~나의 조국, 대한민국'=22일(목)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.

▲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'기억의 향기(대금·거문고)=22일(목)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.

▲Mpia 정기연주회=23일(금) 오후 7시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.

▲주부 인형극단 인형극 정기공연=23일(금) 오전 10시10분 광주 항로문화센터 2층.

▲수미회전=28일까지 무등 갤러리 별관.

▲대학미전=7월26일까지 롯데화랑.

▲'찔레꽃 그리운 날엔'소빈 개인전=30일까지

각화문화의 집 문화관립실.

▲제 8회 예쁜엽서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=24일까지 순천 문화예술회관 제 1전시실.

▲평화를 노래하는 시화전=30일까지 자미갤러리.

▲H-MAX 정기 회원전=7월5일까지 일곡갤러리.

▲을해의 작가 '윤애근·정승구'전=7월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. 로비.


**역사속의 오늘**

▲이탈리아 문예부흥기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 세상 끝남(1527)

▲독일과 프랑스, 유전협정 조인(1940)

▲한일협정, 동경에서 정식 조인(1965)

▲최초의 현수교 남해대교 개통(1973)

▲첫 유인우주실험 스카이랩 귀환(1973)

▲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숙, 미국 의회 증언(1977)

17. 2006 독일월드컵 한국축구 대표팀이 지난 13일 토고를 상대로 월드컵 사상 원정 첫 승을 거뒀습니다. 대표팀이 2대 1로 승리를 거둔 뒤 인터넷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에 대한 칭찬과 동영상이 쉐어없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

이천수 선수는 이날 동점골을 넣었고, '반지 세레메니'로 유명한 이 선수는 역전골을 넣었습니다.

이 선수는 누구일까요?

① 안정환 ② 이을용 ③ 박지성 ④ 설기현

**참여 방법**

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,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,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.

**보내실 곳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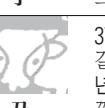
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-711

**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**

6월 22일(음 5월 27일 壬午)



36년생 재물과 건강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. 48년생 불연이면 송사에 휘말린다. 60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. 72년생 직업과 돈, 남편과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. 84년생 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게 처리하라.  
행운의 숫자 : 01, 31



37년생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라. 49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. 61년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라. 62년생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다. 74년생 재산은 충직과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하니 대화를 막는 행동하라.  
행운의 숫자 : 18, 43



38년생 세사에 신墉하고 육심을 버려라. 50년생 협조자가 나오나 조심할 게 판단하라. 62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다. 74년생 재산은 충직과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하니 대화를 막는 행동하라.  
행운의 숫자 : 04, 45



39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. 51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몇을 이는 시기이나 행동하라. 63년생 길보다 흥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墉하라. 75년생 기상전외한 황제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개가 즐거울 것이다.  
행운의 숫자 : 06, 35



40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 마리. 52년생 남자는 도화기가 발동하면 방진수가 있으니 조심하라. 64년생 흥분은 금물이 생각하고 행하라. 76년생 직장에서 새로온 일로 인정받고 가치가 증가된다.  
행운의 숫자 : 02, 32



41년생 신체적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렵다. 53년생 새로운 일에 생각나 전후좌우를 살펴라. 65년생 예산치 못했던 실물과 수수가 있으니 주의하라. 77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. 높을수록 불리하다.  
행운의 숫자 : 23, 44



42년생 자기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면 공은 내게온다. 54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도 던질 수 있다. 66년생 뜨하지 않은 별별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. 78년생 이상의 만남도 좋은 계획을 세워서.  
행운의 숫자 : 20, 28



43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. 55년생 나에게 부지런한 일은 모두가 내 맘으로 생각하라. 67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. 79년생 공술에 복이 따르니 피하는 게 삼책이다.  
행운의 숫자 : 22, 26



44년생 애사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다. 56년생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로 되리라. 68년생 배우자 데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. 80년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.  
행운의 숫자 : 13, 43



45년생 많은 짐이 밀려나 부자로 생각하라. 57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된다. 69년생 일도 훌륭의 각오로 추진하라. 81년생 소탈대실, 육성을 버리는 사람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를 보낸다.  
행운의 숫자 : 19, 42



46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지만 끝내는 기쁨이다. 58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. 70년생 아버지 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. 82년생 애인과 다툼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.  
행운의 숫자 : 16, 20



47년생 작은 것은 내주고 귀중한 것을 취하라. 59년생 일상일복, 작은 것을 알고 큰 것을 버리는구나.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미루리는 자신이. 83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이 더 중요 하리라.  
행운의 숫자 : 24, 41

www.cafe.daum.net/sajoo114 ☎ 011-632-6121

**엄앵란의**
**사랑과 결혼**

(24) 이혼녀! 이제 당당해진다.

최근 '결혼 경험'이 있는 솔로, 즉 이혼녀나 이혼남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.

IMF이전까지만 해도 이혼 경험은 미혼남녀에 비해서 큰 흄으로 여겨졌다.

이혼경험이 있으면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상대방을 가볍게 보려고 하거나, 미혼인 경우에 비해 감점 50점을 줄 정도로 낮은 인식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.

하지만 IMF를 겪으면서 이혼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개인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합리성에 관심을 갖게 됐다. 즉 이혼녀의 직업이나 성격·경력·외모 등 개인적인 브랜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, 결혼 경험도 여러 항목 중 하나로 보는 합리성 수준에 이른 것이다.

결혼을 굳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 목적을 위한 남녀 간

의 계약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.

계약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,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건이란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.

따라서 이혼녀의 인기는 높다. 이혼 시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받아 경제적인 조건은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.

호주제 폐지 등도 이혼녀의 매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.

위자료 혜택은 이혼녀의 최대 매력이다. 민법의 개정으로 재산의 2분의 1을 위자료로 받는다. 이혼 남성은 위자료 지급으로 살던 집

16년간 계속 증가하던 이혼 사례는 지난 2004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. 외연위기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던 결혼 건수도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.

지난해 결혼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재혼(再婚)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.

연예계에서도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해소하는데 큰 몫을 했다. 예전에는 이혼하면 곧장 스타의 운명도 달라진다. 이혼을 즐기는 것보다는 어떤 이혼인기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진다. 이혼이라는 '결과'보다 이혼의 '과정'이 중요해진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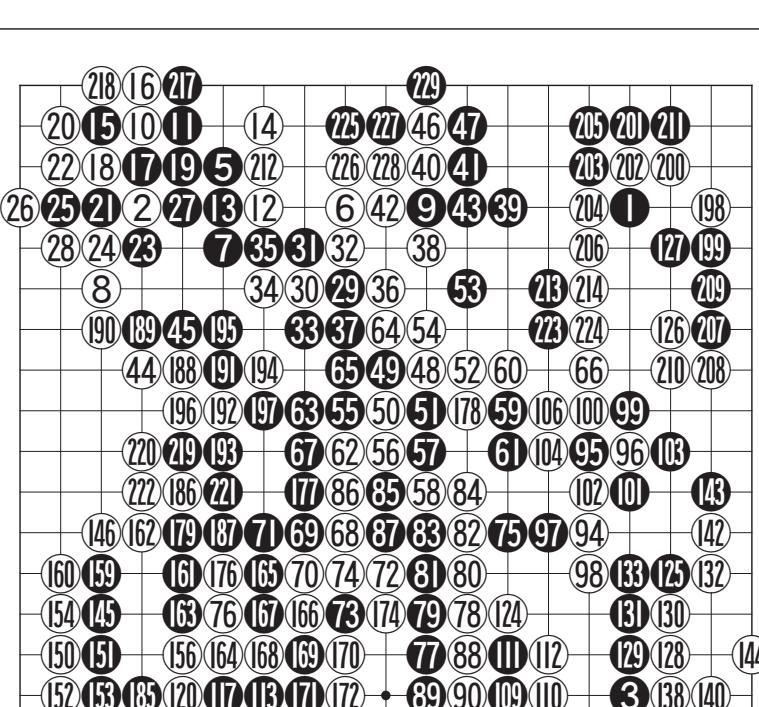
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한 개그우먼 이경실이나 김미화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. 시청자들이 이유 있는 이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.

이혼 뒤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스타의 운명도 달라진다. 영화감독 김성덕씨는 대표적 성공사례로 배우 이미연을 꼽았다. 그녀는 '당당한 이혼녀'임을 밝히는 것으로 이혼 뒤 오히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.

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(www.daksclub.com)

문의 : 1588-66655

<닥스클럽(주) 대표컨설턴트>


**제15회  
광주전남작전비전대회**
**끈기의 승리**

총보(1~229)

白 김형태

&lt;광주시교육청&gt;

黑 박명수

&lt;서광주농협&gt;

생활의 중심 SK telecom

KT&amp;G 전남본부

**굿모닝 잉글리쉬 <673>**

for heaven's sake

난 정말 질렸어

A: How are you getting along with Jane?  
B: I'm thinking of breaking